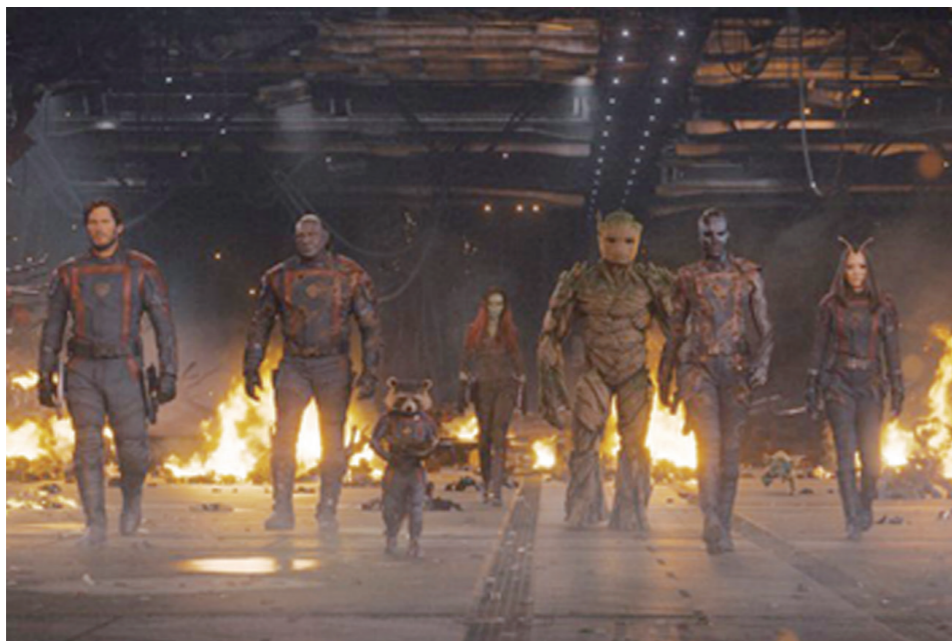


영화 '가오겔3' 어떻게 민심 회복했나

“망했다”던 마블 영화 ‘가오겔3’로 반전 개봉 첫 주에 3700억원 벌어들여 성공 흥행 수치 뿐 아니라 완성도에도 호평



최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영화를 잇따라 내놓으며 “망했다”라는 말까지 들었던 마블 스튜디오가 반등에 성공했다. 새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이하 ‘가오겔3’)가 올해 국내 개봉 영화 중 가장 빠른 속도로 100만 관객을 돌파한 데 이어 어린 이날 연휴를 장악, 무난히 200만 관객 고지를 밟을 거로 예상된다. ‘가오겔3’는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도 포함 전 세계에서 일주일만에 2억8000만 달러(약 3700억원)를 벌어들이며 순항 중이다.

◆예전 마블 영화 같다?

아직 개봉 초반이기 때문에 앞으로 흥행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하지만 마블이 앞서 내놓은 작품들과 달리 다수 관객이 ‘가오겔3’ 완성도에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명예 회복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연예 매체 할리우드 리포터는 ‘가오겔3’ 흥행 소식을 전하며 “장기 흥행이 가능할 거로 보인다”고 내다봤고, 버라이어티 역시 “극장가 여름 성수기로 가는 문을 성공적으로 열었다”고 했다.

마블 영화는 ‘가오겔3’ 나오기 전에 공개된 3편의 영화가 모두 흥행에 실패했다. 지난해 나온 ‘토르:러브 앤 썬더’(271만명) ‘블랙 팬서:와칸다 포에버’(210만명) 그리고 올해 개봉한 ‘엔트맨과 와스프:퀸텀메니아’(155만명) 모두 완성도가 떨어지는데다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엔트맨과 와스프:퀸텀메니아’는 전 세계 총 매출액이 5억 달러를 넘지 못하는 굴욕을

캐릭터인 로켓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가오겔’ 멤버 간 가족애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게 되면서 관객의 몰입감 역시 커졌다. 이게 멀티버스는 게 존재하지 않던 예전 마블 영화 같더라는 말이다.

◆로켓 마무리→설득·몰입·감동 UP

‘가오겔’ 시리즈 마지막 영화를 로켓의 전사(前史)를 보여주고, ‘가오겔’ 멤버들이 그를 구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여정을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한 게 관객 마음을 움직였다는 시각도 있다. ‘가오겔’ 시리즈는 우주를 떠돌던 괴짜들이 한 팀이 돼 슈퍼히어로로 거듭난다는 이야기가 바탕이다. 겉으로 보기엔 유별난 캐릭터들이 사실은 가족·친구와 함께하는 삶을 원하는 평범한 존재라는 설정이 내재돼 있다. 로켓은 ‘가오겔’ 멤버 중에서도 가장 이상한 캐릭터. 그런데도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 모습이 됐는지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 ‘가오겔3’는 이런 로켓에게 시리즈 마무리를 맡김으로써 10년간 ‘가오겔’ 멤버들의 여정을 함께해온 관객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었다.

‘가오겔3’는 로켓의 과거 이야기를 다루기 위해 러닝 타임 상당 부분을 아끼지 않고 투자했다. 시간을 들여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관객의 더 큰 몰입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가오겔3’가 멀티버스에 대한 강박이 없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가오겔3’ 완성도에 관한 평가는 모두 다르지만,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 언론은 대체로 이 작품이 관객의 감성을 건드리는 방식은 성공적이었다고 본다.

◆끝까지 쿨하게 끝까지 뜨겁게

‘가오겔3’가 마블에 실망한 민심을 돌릴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이 시리즈의 정체성을 끝까지 잘 유지했다는 점이다. 유별난 캐릭터들의 이합집산, 끊이지 않고 쏟아지는 유머, 유쾌하면서도 과감한 액션, 이 시리즈의 정체성인 친구·가족 코드, 그리고 시대를 아우르는 명곡을 활용한 OST는 이 영화를 MCU 내에서도 독보적인 위치에 올려놨다.

제임스 건 감독은 ‘가오겔’ 시리즈의 핵심 요소를 반복 사용하면서도 관객을 질리지 않게 하는 연출력을 보여준다. 그만큼 ‘가오겔3’가 균형이 잘 잡힌 영화라는 얘기이다. 캐릭터를 활용할 때와 스토리를 전진시킬 때를 알고, 관객을 웃길 때와 울릴 때를 구분하며, 액션의 완급을 조절할 줄 안다는 것이다. 건 감독의 이 균형 감각 덕분에 ‘가오겔3’는 150분이라는 긴 러닝 타임도 그리 길지 않게 느껴진다.

맞았다. 그러나 3개월 만에 마블 영화에 대한 평가는 반전됐다. 관객은 ‘가오겔3’를 두고 한목소리로 “예전 마블 영화 같다”며 말하며 호평하고 있다.

◆멀티버스가 없다

예전 마블 영화 같다는 말은 멀티버스(multiverse·다중우주) 콘셉트가 빠졌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Marvel Cinematic Universe·MCU)는 ‘어벤저스:엔드 게임’(2019) 이후 페이스4에 진입하면서 멀티버스 시대를 열었다. 멀티버스는 한 마디로 관객이 페이스3까지 봐온 세계와 유사한 형태의 또 다른 우주가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는 콘셉트. 그간 마블 영화는 이 복잡한 세계관을 설명하기 위해 매 영화마다 적지 않은 러닝 타임을 소모해야 했다. MCU 영화 시리즈가 십수년 간 누적되면서 생긴 진입장벽이 멀티버스로 더 높아진 것은 물론이고 멀티버스 시대에서 활약할 새로운 캐릭터를 계속해서 등장시키고 소개하는 과정에서 한 편의 영화로서 완성도도 떨어졌다.

‘가오겔3’에는 멀티버스가 없다. 다시 말해 ‘가오겔’ 시리즈는 MCU 내 다른 작품 또는 다른 캐릭터와 연계되지 않고 사실상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물론 ‘어벤저스’ 시리즈나 ‘토르’ 시리즈와 연결고리가 있긴 하지만 물라도 상관 없는 정도다. 멀티버스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도, 새로운 캐릭터를 소개하지 않아도 되자 이야기가 간결하고 명확해졌다. 이번 작품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미집’ 김지운·송강호 15년만에 함께 칸으로

올해 칸국제영화제에 초청된 김지운 감독의 새 영화 ‘거미집’이 오는 25일 칸에서 처음 공개된다.

바른손은 9일 이렇게 밝히며 “김 감독과 함께 배우 송강호·임수정·오정세·전여빈·정수정·장영남·박정수가 칸 레드카펫을 밟는다”고 했다. ‘거미집’은 76회 칸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초청됐다.

‘거미집’은 김 감독이 2018년 ‘인랑’ 이후 5년만에 내놓은 신작이다. 1970년대를 배경으로 결박을 만들겠다는 강박에 사로잡힌 한 영화감독이 정부의 검열과 출연 배우들의 비협조적인 태도 속에서 영화를 완성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그린 블랙코미디물이다. 배우 송강호가 주인공 ‘김 감독’을 맡았고, 임수정·오정세·전여빈 등이 출연했다.

김 감독과 송강호가 함께 호흡을 맞춘 영화는 이번이 5번째이고,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영화가 칸에 가는 건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후 15년만이다. 또 김 감독이 연출한 영화가 칸영화제에서 선보이는 건 이번이 3번째다. 앞서 ‘달콤한 인생’(2004)과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2008)이 비경쟁 부문에 초청된



적 있다. 송강호는 8번째 칸 레드카펫을 밟았다. 지난해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브로커’로 칸에 가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이날 나온 ‘거미집’ 해외 포스터는 감독 의자에 앉은 ‘김 감독’의 뒷모습 위 거미줄이 쳐져 있는 듯한 표현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성공적이었던 데뷔작 이후, 치경중 전문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김 감독’은 이미 촬영이 끝난 영화 ‘거미집’의 결말만 바꾸면 결박이 탄생할 거라는 집념 아래 재촬영을 감행한다. ‘거미집’ 공식 기자회견은 상영 다음 날에 열린다.

‘거미집’은 칸에서 상영 후 국내 개봉할 예정이다.

최정훈, “더시즌즈 MC 맡아 가문의 영광”



“더시즌즈 MC를 맡게 돼 가문의 영광이다.” 밴드 ‘잔나비’ 최정훈이 가수 박재범에 이어 ‘더시즌즈’를 이끈다.

최정훈은 9일 서울 여의도 KBS 신관공개홀에서 열린 2TV ‘더 시즌즈-최정훈의 밤의 공원’ 제작발표회에서 “유희열의 스케치북이 폐지된 후 얘기를 많이 나눴다. 나같은 밴드나 인디 뮤지션들은 신곡이 나오면 ‘이제 어디서 홍보를 해야 할까?’라고 걱정을 많이 했다”며 “이후 시즌제로 다시 시작하게 됐다. 음악시장이 혼란스럽고 차트가 무의미할 수 있지만 아티스트들에게는 이 무대가 더 소중한 것”이라고 밝혔다.

“처음에 MC 섭외를 받고 내가 할 수 있는지 걱정이 많았고 겁도 났다”면서 “제작진이 날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 자리에서 뮤지션에게 질문을 건네고 진행을 한다는 게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 가문의 영광”이라고 감격했다.

더 시즌즈는 ‘유희열의 스케치북’ 폐지 후 5개월 만에 내놓은 음악 토크쇼다.

올해 1월 첫 선을 보였으며, 박재범이 시즌1을 이끌었다. 연간 프로젝트 방식을 도입, 한 해 동안 총 4개 시즌으로 나눠 방송할 계획이다.

박석형 PD는 “걱정이 많았는데, 지난 시즌이 많은 분에게 사랑을 받았다.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있다”며 “밤의 공원”이라는 제목은 최정훈 가사에서 따왔다. 이번 여름 아름다운 밤의 공원으로 모시겠다”고 설명했다. “최정훈은 박재범보다 한국말을 훨씬 잘한다”며 “박재범이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눴다면, 최정훈은 음악에 중심을 둔 토크를 할 것”이라고 했다.

14일 오후 10시55분 방송.

르세라핌 ‘언포기븐’, 日 오리콘 주간 1위...전작 이어 2연속



‘르세라핌(LE SSERAFIM)’이 일본 오리콘 앨범 차트에서 정규 1집 ‘언포기븐(UNFORGIVEN)’으로 전작 대비 2배 넘는 판매량을 기록하며 또 정상에 올랐다.

9일 일본 오리콘이 발표한 최신 차트(5월 15일 자)에 따르면, 르세라핌(김채원, 사쿠라, 허윤진, 카즈하, 홍은채)의 ‘언포기븐’은 약 8만 9000장의 판매량으로 주간 앨범 랭킹 정상에 올랐다. 올해 해당 차트에서 해외 여성 아티스트가 1위를 차지한 것은 르세라핌이 처음이다.

이로써 르세라핌은 전작인 미니 2집 ‘안티프래자일(ANTIFRAGILE)’에 이어 2연속 오리콘 주간 앨범 랭킹 1위에 올랐다. ‘안티프래자일’은 지난해 10월31일 자 차트에서 4만4000여장의 판매량으로 1위를 기록했다. ‘언포기븐’은 전작 대비 2배 넘게 판매되면서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르세라핌이 지난 2일 오프라인에 내놓은 이

올해 해당 차트, 해외 여성 아티스트 정상 처음 국내 한터차트 기준 초동 125만장...데뷔음반 4배 ↑

번 피지컬 앨범은 앨범 판매량 집계 사이트 한터차트 기준 초동(발매일 기준 일주일 동안의 음반 판매량) 125만 장을 돌파했다.

역대 K-팝 걸그룹 중 데뷔 이후 최단기간 초동 밀리언셀러를 달성했다. 르세라핌은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커리어 하이’를 찍으면서 폭발적인 기세를 자랑했다.

K팝 걸그룹 초동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기도 하다. 현재 K팝 간판 걸그룹 ‘블랙핑크’의 정규 2집 ‘분 핑크’가 154만장으로 K팝 걸그룹 초동 1위다. 4세대 K팝 선봉 걸그룹 ‘에스파’의 미니 3집 ‘마이 월드’가 137만장으로 2위다. 에스파의 ‘걸스’가 112만장으로 4위, 아이브(IVE)의 정규 1집 ‘아이해브 아이브(I’ve IVE)’가 110만장으로 5위다.

특히 르세라핌 ‘언포기븐’은 발매 첫날에만 102만 장 이상 판매되며 K-팝 걸그룹 역사상 데뷔 이후 최단기간 초동 밀리언셀러를 기록했다.

르세라핌의 역대 앨범 초동을 살펴보면 이들의 매서운 성장세를 실감할 수 있다. 1년 전 발매한 데뷔 앨범 ‘피어리스(PEARLESS)’가 30만 장, 미니 2집 ‘안티프래자일

(ANTIFRAGILE)’이 56만 장의 초동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이번 정규 앨범은 무려 4배, 2배 이상 광폭 성장한 수치다. 아울러 ‘안티프래자일’에 이어 2연속 밀리언셀러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르세라핌은 글로벌 음원 차트에서도 괄목할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 최대 스트리밍 업체인 스포티파이의 최신 차트에 따르면, 르세라핌의 ‘언포기븐’ 타이틀곡 ‘언포기븐’은 7일 차 글로벌 ‘일간 톱 송’에 73위로 안착하면서 정규일 연속 차트인 했다. 한국 차트에서는 6일 연속 정상을 지켰으며 총 15개 국가/지역의 ‘일간 톱 송’에 진입했다. 또한 이 곡은 벅스, 멜론, 지니의 주간 차트(집계기간 5월 1~7일)에서 각각 2위, 3위, 4위를 차지했다.

또한, 르세라핌의 ‘언포기븐’ 뮤직비디오는 전날 8일 오후 6시에 유튜브 조회수 5000만 회를 돌파했다. 이 영상은 같은 날 한국 유튜브 뮤직의 인기 뮤직비디오와 핫이슈 차트 1위로 진입했다. 전날 공개된 퍼포먼스 뮤직비디오는 공개 8시간 만에 100만 뷰를 돌파했고 이날 정오 기준 조회수 322만 회를 기록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 스타 2명과 불륜 폭로

미국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자서전 제작이 불륜 폭로에 따른 법적 우려로 연기됐다.

영국 매체 더 선 등 외신은 지난 7일(현지시간) 스피어스의 자서전이 그녀가 2명의 할리우드 스타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주장에 대한 법적 우려 속에 잠정 연기됐다고 보도했다. 내용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 때문에 자서전 제작이 중단됐고, 이에 대해 자체 법무팀과 협의 중이다.

한 측근에 따르면 스피어스가 쓴 내용이 공개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출판사에 편지를 보냈다. 그는 “스피어스는 책에서 잔인하게 정직하다. 긴장한 톱스타들이 많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면서 자서전은 당초 2024년 2월에 출간될 예정이었으나 그해 연말 출간으로 변경됐다.

자서전은 그의 세 번째 남편인 배우 샘 아스가리와의 결혼, 그녀가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없는 주제들을 다룬 예정이다. 스피어스의 한 측근은 “그녀는 자서전이 세상과 이야기하는 순간이 되길 바란다”며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기록을 바로잡는 일이 되길 바란다. 특히 과거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꽤 있는데 이중 일부는 처음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피어스는 세간의 이목을 받으면서 살았지만, 그가 비밀리에 유지할 수 있었던 관계와 사람들이 있다. 그 중에는 유명한 영화배우들과 음악계 사람들이 포함됐다”며 “스피어



스는 책에서 윤임을 다해 진실을 말하길 원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피어스는 2004년 고교 동창인 제이슨 알렉산더와 결혼했지만 5시간 만에 이혼하며 구설에 올랐다. 같은해 백댄서 출신 케빈 페더라인과 재혼해 두 아들을 뒀으나 2006년 이혼했다.

스피어스는 지난해 6월 12세 연하 모델 샘 아스가리와 세 번째 결혼식을 올렸다.